

네덜란드 책임 인정 판결을 통해 본 스레브레니차 대학살의 국제사적 의미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학대학 교수

주요내용

- ▶ 지난 6월 27일,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1995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전쟁과 무고한 보스니아 무슬림 8,0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스레브레니차 학살 사건’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 또한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 ▶ 스레브레니차 학살은 1995년 7월 11일 보스니아 내전 당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가 UN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스레브레니차 마을을 점령해 보스니아 무슬림 남성과 소년 등 8,000여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임.
- ▶ 스레브레니차 학살 사건의 ‘대량학살(genocide)’ 인정 여부를 둘러싼 국제 사회 간 논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세르비아와 네덜란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 인정 요구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음.

1. 이슈현황

- ▶ 지난 6월 27일,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1995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전쟁과 무고한 보스니아 무슬림 8,000여명이 목숨을 잃은 ‘스레브레니차(Srebrenica) 학살 사건’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 또한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6월 27일 보스니아 내전 당시 스레브레니차 학살로 목숨을 잃은 보스니아 무슬림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의 부분 보상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받아들임.

- 보스니아 내전(1992.3-1995.10) 당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에 의해 스레브레니차에서만 약 8,000여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된 바 있음.
- 겍케 듀렉(Gepke Dulek-Schermers) 주심 판사는 “법원은 지난 보스니아 내전 당시 네덜란드 정부가 불법적으로 행동한 사실을 인지했음”을 인정하며, “1995년 보스니아로 파견된 네덜란드 평화유지군(UNPROFOR)은 (학살된) 무슬림 남성과 소년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수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힘.
- 스레브레니차 학살의 책임 논쟁을 둘러싼 갈등은 내전 종결 직후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왔음.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네덜란드의 부분 배상 책임에 이어 또 다시 원심을 인정한 것임.

- 스레브레니차 희생자 유족들은 네덜란드 유엔 평화유지군의 책임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고 이를 네덜란드 민사 법원에 제소. 네덜란드 원심 법원은 2014년 네덜란드 군에 부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며, 네덜란드 정부가 스레브레니차 희생자 유족들에게 배상할 것을 판결함.
- 하지만 네덜란드 군과 정부는 당시 보스니아로 파견된 네덜란드 평화유지군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의 공격을 막고 보스니아 무슬림계 피난민을 보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임무였음을 피력함.
- 실제 이 논쟁에 대해 제닌 헨니스 플라스하르트(Jeanine Antoinette Hennis-Plasschaert, 재임 2012-) 국방장관은 2016년 “네덜란드 평화유지군은 적절한 준비도, 정보도 거의 없이 보스니아에 파견됐다”고 주장함.
- 더불어 “그 결과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의 무차별한 공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으며, 보스니아 무슬림계의 보호 임무 또한 불가능한 상황의 비현실적인 임무였다”고 언급함.
- 이에 보스니아 내전 당시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됐던 206명의 병사들도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중임
- 변호인은 국방장관이 당시 평화유지군 파견이 불가능한 임무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언급하며, 파견 군인들의 정신적 물질 피해를 고려하여 각각 2만 2,000유로(약 2,800만원)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 중임.

2. 원인과 분석

▶ 스레브레니차 학살은 1995년 7월 11일 보스니아 내전 당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가 UN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스레브레니차 마을을 점령해 보스니아 무슬림 남성과 소년 등 8,000여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으로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와 유고전범재판소(ICTY)는 이를 명백한 대량학살(genocide)이라 판결 내림.

- 현지 시간으로 7월 11일,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Sarajevo)에서 북쪽으로 150km 떨어진 스레브레니차 포토차리(Potočari)에서 수만 명의 추모 행렬 속에 22주년 기념식이 열림.
- 이 행사에선 희생자들 가운데 새로 신원이 확인된 71명의 유해를 먼저 묻힌 6,000명의 희생자들 곁에 안장하는 합동장례식이 치러짐.
- 1995년 7월 보스니아 내전 당시 스레브레니차 포토차리 지역으로 약 3만 명의 보스니아 무슬림들이 쫓기어 UN 안전지대(UN Safe Zone)로 피신해 왔음.
-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총사령관인 라트코 므라디치(Ratko Mladić) 하 스릅스카 공화국(Srpska republika, 보스니아내 세르비아 공화국) 군대는 이 지역 점령 후 인종 청소를 단행
- 당시 UN은 스레브레니차를 유엔 안전 보호지역으로 선포하였고 무장한 네덜란드 군이 주둔 중이었음.
- 하지만 네덜란드군은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의 무력시위에 마을을 내주었고 그 결과 보스니아 무슬

림의 학살을 방조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음.

- 2015년 발표에 따르자면 국제실종자위원회는 수 십개 공동묘지에서 찾아낸 1만 7천점의 유골로부터 6,930명의 희생자를 확인했으나 1,000여명은 아직도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힘.
- 보스니아 실종자 관련 연방위원회는 이 당시 실종 및 살해된 사람들이 8,372명이며, 수십 명의 여자들을 포함해 이 중 약 500명이 18세 미만 아이들이라고 밝힘.

□ 스레브레니차 집단 학살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량 학살 사건으로 기록됨.

- 2004년 구(舊)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는 스레브레니차 집단 학살을 명백한 집단 학살(genocide)이라 판결내림.
- 판결문에는 이 사건이 스르프스카 공화국 하의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와 군이 보스니아 무슬림계 제거를 위해 일으킨 집단 학살사건이라 밝힘.
- 더불어, 보스니아 세르비아계는 UN의 안전지대로 피신한 스레브레니차 내 무슬림 거주민 4만 명을 숙청하고자 했으며, 군인과 민간인, 성인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남성 포로들의 개인 소유물과 신원서를 강제로 빼앗고, 고의적으로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이슬람)만을 근거로 삼아 살해한 대량학살 사건이라 선고함.

□ 보스니아 내전을 비롯해 스레브레니차 학살 사건을 주도한 혐의자들에 대한 헤이그 구(舊)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의 재판이 진행되었고, 2차 세계대전 최초로 전범들에게 집단 학살 죄가 적용됨

- 2007년 2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스레브레니차에서 벌어진 사건이 계획적 집단 학살이었다고 발표하며 ICTY의 판결을 재확인함.
- 스레브레니차 함락 직후 지휘관에 임명돼 ‘인종청소작전’을 수행한 혐의로 세르비아군 장군 라디슬라브 크르스티치(Radislav Krstić)는 집단 학살 죄를 적용해 징역 46년형을 선고함.
- 그리고 라트코 플라디치는 2011년 5월 세르비아 정부에 의해 체포되어 기소되었음.

3. 전망과 시사점

▶ 스레브레니차 학살 사건의 ‘대량학살(genocide)’ 인정 여부를 둘러싼 국제 사회 간 논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세르비아와 네덜란드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인정 요구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음.

□ ICJ의 판결과 ICTY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스레브레니차 학살에 대해 UN 등 국제 사회가 ‘대량학살(genocide)’로 인정할 지를 두고 이를 둘러싼 갈등과 논쟁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

- ICJ와 ICTY가 스레브레니차 학살이 ‘대량학살(genocide)’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세르비아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지지하며 대량 학살 규정이 대립적이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이 지역의 평화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비판함.
 - 미국과 영국 등은 “당시의 비극적인 사건을 대학살로 규정하는 것이 이 지역 평화와 화해의 필수 조건”이라며 2015년 20주년 기념식 이전인 7월 8일 UN 안보리 투표에서 결의안 채택을 주도함.
 - 여러 논란 끝에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15년 7월 8일 이 학살을 ‘대량학살 범죄’로 규탄하는 결의안을 올려 표결했지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건 채택이 무산됨.
-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재임 수상 2003-2014, 대통령 2014-) 터키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나치’로 몰아붙인데 이어 유고내전 최악의 인권유린사건인 ‘스레브레니차 학살 책임국’으로 비난함.
- 2017년 3월 14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장관의 입국 불허와 함께(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터키 개헌(2017년 4월) 지지 집회를 막은 네덜란드를 향해, 네덜란드가 1995년 보스니아 스레브레니차 학살 사건을 사실상 방관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함.
 - 더불어 그 당시와 같은 파시즘이 네덜란드를 비롯해 유럽에 살고 있는 모든 무슬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며 유럽 사회의 이슬람 난민 대우에 관한 불신을 표출함.
 - 네덜란드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스레브레니차 사건의 책임이 네덜란드에게 있다는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라며 에르도안 대통령을 비난함.
 - 당시 직접적인 학살 책임이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덜란드가 평화유지군으로서 희생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은 지금까지도 예민한 부분임.
 - 스레브레니차 사건은 이번 판결에서도 보이듯 네덜란드에게 민감한 이슈이자 국가적 상처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세르비아 정부는 스레브레니차 학살을 대량학살 사건으로 인정하지는 않음. 반면 다른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이 사건의 가해자란 입장에서 여러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이에 대해 세르비아가 역사 세탁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난 또한 대두되고 있음.
 - 2015년 7월 스레브레니차 학살 20주기 추모식에 왔다가 보스니아 무슬림의 성난 군중들로부터 돌 세례를 받고 쫓겨났던 세르비아 부처치 당시 총리(Aleksandar Vučić, 재임 총리 2014-2017, 대통령 2017. 5. 31-)가 4개월 만인 당해 년 11월 추모관을 다시 찾아 조의를 표함. 이 자리에서 540만 달러(약 62억 5,000만원) 규모의 경제 지원책 또한 밝힘.
 - 2015년 9월, 세르비아 검찰은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계 특수경찰부대 사령관 네델코 밀리드라고 비치(Nedeljko Milidragović)와 7명의 대원들을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등 스레브레니차 학살 사건의 전범 처리를 위해 노력함.
 - 이들은 스레브레니차 학살시 남성 주민 약 1,000명을 창고로 끌고 가 총을 난사하고 폭탄을 터트리며 몰살시킨 혐의를 받고 있음.

- 하지만 스레브레니차 학살을 대량학살로 인정하지 않는 세르비아가 단순히 외교적 제스처 등 역사 세탁만을 시도하고 있다는 논쟁이 대두 중임.

□ 이런 가운데 스레브레니차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평화 정착을 향한 다양한 노력들을 비롯해 반전(反戰) 단체들의 스레브레니차 학살 재조명 움직임이 확산됨.

- 2016년 12월, 시리아 알레포의 비극 확산이 '제 2의 스레브레니차' 대량학살로 비유되자, 보스니아의 무슬림 여성들 수천 명이 빨간 잉크가 뿌려진 흰색 천으로 아기 모양의 인형을 감싸 안고 검정 색 테이프를 입에 붙인 채 알레포의 비극을 끝내줄 것을 국제 사회에 호소함.
- 스레브레니차 학살 22주년 전날인 7월 10일, 반전운동단체인 '상복을 입은 여인들' 회원들이 세르비아 수도 벨그라드(Belgrade)의 공화국 광장 등 여러 지역에서 보스니아 대학살 22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와 함께 세르비아 정부가 이를 대량학살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임.

EMERiCs

참고문헌

- 김철민(2007) 『동유럽의 민족분쟁: 보스니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살림출판사.
- 김철민(2017) “내전 종결 20년, 보스니아 민족들의 역사 인식 공유 현황 연구: 조각 난 역사 퍼즐과 역사 인식의 상이성” 『동유럽발칸연구』 Vol. 41. No. 2, 아시아중동부유럽학회, 85-117.
- Aljazeera, “Russia vetoes UN genocide resolution on Srebrenica” 2015. 7. 9.
<http://www.aljazeera.com/news/2015/07/russia-vetoes-genocide-resolution-srebrenica-150708150057291.html>
(검색일: 2017. 7. 27)
- Blic, “Nastavljeno suđenje u slučaju ‘Srebrenica’”, 2017. 5. 31.
<http://www.blic.rs/vesti/hronika/nastavljeno-sudenje-u-slucaju-srebrenica/le4hdr9> (검색일: 2017. 7. 27)
- Business insider, “22 years ago 8,000 Muslim men and boys were killed at Srebrenica in Europe's worst atrocity since WWII”, 2017. 7. 11. <http://www.businessinsider.com/srebrenica-bosnia-genocide-2017-7> (검색일: 2017. 7. 25)
- Daily Sabah, “Shadow of Srebrenica still hovers over the Netherlands, Erdoğan says” 2017. 3. 14.
<https://www.dailysabah.com/diplomacy/2017/03/14/shadow-of-srebrenica-still-hovers-over-the-netherlands-erdogan-says> (검색일: 2017. 7. 26)
- ICTY, “Address by ICTY President Theodor Meron, at Potocari Memorial Cemetery” The Hague, 2004. 6. 23.
<http://web.archive.org/web/20040702011619/http://www.un.org/icty/pressreal/2004/p860-e.htm> (검색일: 2017. 7. 25)
- The Guardian, “Srebrenica massacre: Dutch soldiers let 300 Muslims die, court rules” 2017. 6. 28.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jun/28/dutch-soldiers-let-300-muslims-die-in-bosnian-war-court-rules>
(검색일: 2017. 7. 26)

💡 알립니다

-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